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김종환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385 |
|----------|------|

발의연월일: 2024년 12월 일

발 의 자: 김종환, 정용한, 황금석, 서희경,
추선미, 박주윤, 안광림, 구재평,
이영경, 김장권, 박광순
(이상 11명)

□ 주 문

-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수목장림이 설치허가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는 수목장림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환경적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법 개정 등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 제안이유

- 2018년 10월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이후, 대규모 유류저장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된 가운데, 판교저유소 인근 400m 지점에 수목장 설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판교저유소는 고양저유소보다 토지규모와, 저유용량이 약 5배로 큰 시설에 속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에 수목장림이 설치된다면 향후 수목장림 내 향초사용, 흡연, 개인화기 활동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석운동 및 서판교 지역에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수목장 예정지와 인근 주거지와 거리가 1km이내 위치하여 주거환경 저하와 교통혼잡 등의 기본권 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를 반대 할 것을 관련기관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청장), 산림청(청장)
경기도,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 붙임 :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반대 촉구 결의안. 1부. 끝.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의회는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1시경, 고양저유소 인근 공장에서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의 잔디밭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하여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판교저유소는 고양저유소에 비해 토지규모와 저유용량이 205만 배럴로 약 5배 이상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2019년 경기도 차원에서조차 고양저유소 대형 화재를 계기로 고양저유소를 비롯 판교저유소도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도지사가 특별관리에 들어갔으며, 2023년에 국회에서는 ‘위험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시설의 안전규정 이행 여부를 행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판교저유소 옆에 수목장이 설치되면, 향초 사용, 흡연, 개인화기 활동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서판교는 물론 분당 전체에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성남시의회의회는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반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와 경기도에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허가 불수용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수목장림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환경적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법 등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와 경기도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포함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